

교 육 연 수 결 과 보 고 서

구 분	연구연가, 연구직 단기연수, 비연구직 단기연수, 직무·소양교육, 장기교육연수(학위·직무), 기타()				
신청자	성 명	직급 (직책)	입사년월일	전 공 (학 위)	과거연수 실적
	김인순	전문 연구원	1989.7.1	사회학	태국(1993)
교육연수 기 관	기관명 (소재지)	과 정 명			연락처
	미국	워싱턴대학 다문화 교육센터			206-543-3386
기 간	2009.11.7-2009.12.6				
경 유 지					
경 비	(기관부담 : 350만원)				
교육연수 내 용 (프로그램 등)	목적 : 미국의 다문화 지원 관련기관 방문 방문국가 : 미국 시애틀 방문기관 :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워싱턴대학교) Good Will(이민자 취업훈련, 교육기관) ACRS(아시안상담지원센터) Community center(벨뷰 커뮤니티 센터) KWA(대한부인회 워싱턴 지사)				
기 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교육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09. 12 . 10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첨부 : 단기연수결과보고서 1부</div> <div style="text-align: right;"> 보고자 김인순 (서명) 부서장 변화순 (서명) </div> </div>					

단기 연수 결과 보고서

1. 연수 참가자

연 수 자: 김인순(성평등정책연구실)

2. 연수 기간

2009.11.7-2009.12.6

3. 연수 국가 및 방문기관

미국 시애틀

방문기관: 워싱턴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The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이민자 취업교육·훈련기관 굿윌(Good Will)

커뮤니티센터(Crossroads community center, city of Bellevue)

아시안상담서비스(ACRS)

학교 다문화학생, 다문화가정지원 통역요원(Interpreter)

대한부인회(Korean Women's Association of Washington States)

4. 연수 목적

(미국사회의 다문화 지원관련 기관 방문)

한국도 이주민 100백만 시대를 맞으면서,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연구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초기에는 이주민에 의한 한국사회로의 일방적인 통합정책중심에서 이주민과 내국민 쌍방의 노력이 요구되는 다문화주의적 입장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확장하는 방향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또 초기단계의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적응교육에서 이주민의 거주기간, 결혼생활 등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문제, 인권문제, 취업문제, 교육문제 복지문제 등 일상생활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사회통합 전담부서 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부에서는 이민정책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다문화팀을 두고 전국 38개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까지의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중심에서 가정폭력, 이혼시 발생하는 친권문제, 인권문제, 취업문제로 관

심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교육과학부에서는 이주민들의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들의 학교적응과 학습지원을 위해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범운영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중이다. 노동부에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형태로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최근 신문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듯이 한국에 시집온 여성들의 친정가족 70명(몽골 46명, 우즈베키스탄 20명, 카자흐스탄 4명)을 초청, 6박7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자녀와 사위를 만나고 한국문화 체험하는 다문화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에서 여러 관련부처의 다각적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국가로 개인혹은 가족단위의 이주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며 세계적인 현상이며 세계화의 진행정도에 따라 이주하는 이동인구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민자, 이주자의 역사가 더 긴 나라들의 경험은 우리사회에서 이주민 정책 마련에 일정한 방향과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단일국가로 출발하여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달리 국가기반 자체가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일 보여줄 것이지만, 미국사회의 다문화정책에서 받을 수 있는 시사점도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가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의 콘텐츠를 살펴보기로 한다.

5. 연수 일정

11월 7일 출발(미국 11월 7일 도착)

11월 11일 워싱턴 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방문 및 면담

11월 13일-15일 Lake Washington School District, Bellevue School District

학교 문화통역사 이영재씨 컨택 및 면담

11월 18일-19일 벨뷰 커뮤니티센터 방문 방문 컨택 및 방문

11월 23일-25일 Good Will 작은 곳 방문, 대형 Good Will 방문

11월 27일 대한부인회 워싱턴 지사 방문 및 이사장 면담

11월 30일 귀국(한국시간 12월1일 도착)

12월 2일-6일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료정리

6. 연수 결과

이번 연수에서는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및 관련인사를 만나 정보를 수집하였다. 방문기관으로는 워싱턴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The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외국인들을 위한 취업·훈련기관 굿윌(Good Will), 벨뷰커뮤니티센터(Crossroads community center, city of Bellevue), 아시안상담서비스(ACRS), 학교 다문화학생, 다문화가정지원 통역요원(Translator), 대한부인회(Korean Women's Association of Washington States)를 방문했다. 이주자들의 취업훈련, 취업문제, 건강문제, 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정부, 비정부기관의 사업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다.

1) The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워싱턴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센터는 1992년부터 운영되었다. 모든 학생들의 평등이슈, 집단간 관계, 학습성취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와 연구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연구의 주요초점은 전지구적 맥락에서 다양성과 시민교육을 검토하는 것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내 문제로부터 초점을 옮겼다는 것은 아니며, 미국내 증가하는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다양성과 책임감은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센터의 작업은 국가적 수준, 세계적 수준의 교육 이슈들이 연관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의 다양성 증가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는데, 다양한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에게 상이한 문화를 가르쳐 줄 수 있게 하고 집단간 서로 생산적이고 협동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다양한 집단이 살아가고자 할 때 편견과 차별은 도전이 된다. 세계화와 그 결과는 다양하고 분할되고 문제많은 세상에서 왜 학생들이 냉정한 사고자와 적극적인 시민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센터의 임무는 교육자들이 다양성이라는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센터에서는 대중강의, 석사·박사과정, 책자편찬을 하는데, 이와 같은 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활동할 사람들에게 다양한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수법을 배우게 되어 교사, 교육행정, 교육입법가, 교육심리학, 교육정책, 교육현장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리더쉽과 교수학습법을 학습하게 된다.

○ 석박사과정: 다문화교육센터는 1992년부터 개설되었으며, 석박사 과정이 있는데, 2009년 현재 박사과정에 20명, 석사과정은 20명보다 많은 학생이 등록하여 공부를 하고 있고 8명의 교수가 있다. 과거에는 워싱턴대학에 학부과정이 없었으나 최근에 교육대학에 학부과정을 두게 되었으며 다문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교육학을 기본적으로 학습한 사람이라고 한다.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면, 석사과정은 교사들이 많은데, 학교현장에서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더 생산적이고 잘 하기 위해 석사과정에 등록한다고 한다. 박사과정은 주로 미국인들이 등록하

는데 대학에서 교수지위를 가지고자 공부하며 이제까지 외국인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3명으로 캐나다 2명, 대만인 1명으로 이들은 박사학위를 하고 고향으로 갔다. 박사과정은 대부분 미국에 살고자 하는 미국인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 다문화센터 공부하는 학생수 추이: 미국의 사립학교에 들어오는 이주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분야를 공부하려는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 타 대학에도 다문화과정 있는지 여부: 다른 대학에도 다문화연구센터나 유사한 코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워싱턴대학처럼 석박사과정은 없다고 한다. 다문화교육은 약간 혼란한 감은 있지만 교과과정이나 교수영역 내 전문영역이다. 다문화센터는 일차적으로는 연구센터이며 대중을 위한 다문화교육연구를 확산시키는 일을 수행한다. 타 대학의 경우, 철학저기 기반에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교육”연구센터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 졸업후 진출분야: 많은 경우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학교현장으로 돌아가지만, 때로는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역수준의 직업을 발견하기도 한다. 일례로 지역에는 다양성 관련업무를 보는 코디네이터 직이 있다. 박사과정은 일차적으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찾고자 하며, 그보다 더 상위의 학교나 교육청 행정직을 구하기도 한다.

○ 2009년 현재 석박사 교육과정 내용:

다문화 & 이중언어 교육과정

<p>EDI & 424 Multiethnic Curriculum and Instruction(3) primarily for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who have little or no previous exposure to issues related to ethnicity and schooling. Designed to help teachers better understand the school's role in the ethnic education of curricular and instructional strategies that reflect ethnic diversity.</p>
<p>EDC & 453 Teaching the Bilingual-Bicultural Student(3) educational needs of bilingual student: research findings, special program, materials, and methodologies that bilingual population in American culture; historical, social, and linguistic factors affecting their K-12 education. Undergraduate Only.</p>
<p>EDC & 456 Workshop in the language Arts: Language and Culture in the Classroom(3)Examine the education of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student. It will focus on the connection between language, culture, and learning. Course topics include dialect variation, language socialization, language and power, and sociocultural conceptions of learning.</p>

다문화 & 이중언어 교육과정(계속)

EDC & 457 Method i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3)	Prepare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to teach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nd to meet students' education and linguistic needs of students who have little or no English language skills. Emphasis on a survey of first- and second-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as well as instructional strategies consistent with the audiolingual, cognitive, and creative construction approaches to second-language learning. Includes diagnostic-prescriptive strategies for classroom application. Undergraduate Only.
EDI & 458 Content Area ESL Instruction(3)	Exposes student and engages them in how to support their English Language Learners(ELL) in content areas through sheltered instruction, specifically through the framework, 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SIOP). Focused specifically on the academic language of ELL students. Undergraduate Only
EDC & 464 Educating Native-American Youth(3)	Assists students in understanding the North American Indian students from cultural socioeconomic,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 Provide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apply the knowledge and skills gained in other courses to prepare programs and learning aids relevant to the educational situation of Native American students.
EDI & 469 Teaching African American Student and Culture(3)	Examination of the sociocultural and pedagogical factors that African American student's learning styles, opportunities, and outcomes; exploration of ways to reform teaching techniques to better accommodate cultural styles and experience to improve the educational achievement of African American students.
EDC&I 474 Multi-Ethnic Studies: Methods, Content, and Materials(3)	Designed to help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identify content and materials and devise methods for implementing ethnic studies programs and for incorporating ethnic content into regular K-12 social studies, language arts, and humanities curricula.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eaching about Americans, and White ethnic groups.
EDC&I 505 Multicultural Education Across Nations: Policy and Curriculum Issues(3)	Designed to acquaint student with the research,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around the world. An emphasis will be on how different nations educate students for citizenship and balance unity and diversity.

EDTEP 511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3)	Designed to enable students to master the concepts, theories, and strategies that constitute the practice in multicultural education around the world. An emphasis will be on how different nations educate students for citizenship and balance unity and diversity.
EDPSY 536 Learning Variables of Minority Children: Instructional Implications(3)	Provides students with teaching strategies and data regarding four variables(language/dialect/cognitive style, locus of control, and motivational systems) that learning affect among minority students.
EDC&I 541 Seminar Bilingual Education: Organization and Structure (4)	Study of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bilingual education. Assists graduate students in reviewing the historical antecedents in bilingual education and in developing a personal philosophy about bilingual education.
EDC&I 542 Seminar in Bilingual Education: Instructional Foundation and Issues(4)	Study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instructional implications of psychology and linguistics as they apply to bilingual education. It enables graduate students to explore the learning styles of bilingual children and to become familiar with issues in bilingual education.
EDC&I 543 Seminar in Bilingual Education: Instructional Strategies (4)	Study of instructional factors affecting bilingual education. Particular emphasis is given to research related to the variables involved in teaching in a bilingual environment. Assists graduate student in exploring instructional methodologies and formats as they apply to bilingual education and in becoming familiar with the current issues in bilingual education.
EDC&I 544 Immigration and Education: Immigrant Student Perspective (3)	Examines the multitude of facts which shape the immigrant student experience in U.S. schools. Takes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drawing on research from sociology, anthropology, and education, to understand teaching and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nt students.
EDC&I 547 Sociolinguistics (3)	The study of language in its social context and the study of social life through language. Explores issues in the field of sociolinguistics and sharpens tools to explore educational issues related to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Prerequisite: EDC&I 453 or equivalent.
EDLPS 549 Education for Liberation (3)	The primary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race and understand the location of education in the struggle for equal rights and liberation. Participants examine how different groups(ethnic, gender, religious) have a defined "liberation" and "proper education" over time and attempt to understand overlap and divergence in their conceptualization.

다문화 & 이중언어 교육과정(계속)

EDLPS 566 Educational Policy Serving Disenfranchised Groups (3) Examining programs and policies aimed at ameliorating conditions that face disenfranchised groups in contemporary K-12 schooling. Seminar members critically analyze the assumptions, design, and likely impact of these programs and policies on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This seminar was designed for advanced doctoral students; others admitted only with permission of instructor.
EDC&I 569 Educating Ethnic Minority Youths (4) Intensive analysis and review of the research and curricular programs related to the social, psychological, and 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school experience of the ethnic minority youths.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instructional and curricular programs for African American, American Indian, Mexican American, Puerto Rican American and Asian American students. Prerequisite: graduate standing or permission of instructor.
EDC&I 573 School Reform and Multicultural Education (3)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visions, goals, and strategies of proposals for school reform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re analyzed; implications for practice in curriculum and instruction are deduced from these analyses. Prerequisite: one course in multicultural education or permission of instructor.
EDC&I 574 Race, Gender, and Knowledge Construction: Curriculum Consideration (3) Using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 considers ways in which knowledge related to race and gender has been and is constructed and the implications of ways in which knowledge is constructed for curriculum reform and teaching. Prerequisite: one course in ethnic studies, Multicultural education, or women studies or permission of instructor.
EDLPS 579 Special Topics in Organizational & Policy Analysis: Race, Ethnicity, & Educational Policy (3) Policy discussion involving issues of diversity in education often overlook an extensive history of soci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difference in American society and in education across the spectrum. There are few policy questions more momentous in educational policy today than how to comprehend and deal with social diversity. Over the years, amid complex social forces, educators and policy makers have proposed a wide range of solutions to deal with social diversity. This course undertakes the Myrdal as a point of departure to examine policies aimed at schooling and social diversity.
EDLPS 594 Alternate Models of Higher Education (3) This course presents alternate models of higher education and promotes a greater understanding of ethnic and culturally based models, and where they fit within the larger realm of postsecondary education. Specifically, the course will present the historical context of each institutional form as well as address the issues of access, campus environment, academic outcomes and success.

EDLP 598 Special Topics in Higher Education: Diversity (3) Combines readings, lectures, and discussion pertaining to a significant topic of special and current interest to postsecondary educators.

2) Good Will: 외국인을 위한 취업·훈련기관

방문기관명: 굿윌(www.seattlegoodwill.org)

만남사람: Jimi Martin

JTE Administration job training & Education Program

모든 물품은 무상으로 기부를 받으며, 수익금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언어과정, 캐시어과정, 간병인 등 8개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굿윌의 직원으로 취업을 하며, 다른 기관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있다. 훈련과 취업이 연계되어 있다. 시애틀에 2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본사는 상당한 크기의 부지를 사용하며, 2개 매장 모두에서 안쪽 공간은 훈련학습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대부분 이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하는 관리인, 캐시어들 대부분이 이주자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책, 침대, 소파, 가전제품들이 매우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매우 많아 북적거리는 수준이었다. 물품의 가격택은 붉은 라벨, 파란라벨, 분홍라벨로 분류되어 있으며, 거의 매일 그날의 특별세일 품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주 단위로 색깔별로 50% 세일 혹은 모든 물건을 1.29\$에 판매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 달 단위의 세일판매계획에 대한 부로슈어를 만들어 비치하고 있었다. 매장 안쪽에 공간을 할애하여 컴퓨터교육, 영어교육 등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매우 다양한 일상생활 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인지 부부가 와서 물건을 고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이용객들이 제법 있었다. 방문한 2곳 중 1곳은 본사역할을 하는 곳인데, 차를 보유하고 있어 연락을 주면 직접 물건을 회수하러 가는데, 5대의 대형차가 물건을 반입하고 내리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도시주민들이 쓰지 않는 깨끗한 물품을 무료로 후원을 받아, 싼 가격을 책정하여 가격택을 붙이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이주민들을 훈련시키고 취업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기관이었다. 흔히 시애틀을 진보적이라고 표현한다는데, 벨뷰 도심 한복판 도로변에 노숙인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즉 찾기 어려운 한적한 후미진 곳이 아니라 도심중간에 누구도 찾기 쉬운 도로변에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눈에 봐도 알수 있는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이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굿윌은 시애틀에 2개소가 있으며 상당한 부지를 확보하여 온갖 종류의 일상생활 용품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외국인대

상으로 캐시어교육 등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며, 영어, 컴퓨터, 엑셀과정 등 60여개의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훈련후 3개월 자체 직원으로 채용할 뿐 아니라 인근 마켓 등 3개월에 구인등록을 한 많은 업체로 취업을 시키는 역할을 하며,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매장 2곳을 전부 들어보았는데, 외국인들이 훈련을 받고 캐시어로 일한다고 하는데, 미국인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거의 외국인 캐시어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매장관리나 여러 가지 클래스의 교육훈련을 시키는 요원들도 대부분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매장으로 들어가보니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의류, 신발, 매트리스, 의자, 소파, 컴퓨터, 세탁기). 중고품이 아니라도 장갑, 매트리스 등 재고가 많은 업체 혹은 뜻있는 업체에서 기증을 하면 싸게 판매하는 코너도 있어서 중고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도 있었다. 택을 붙이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전시방법, 계산방법 등을 배운 후 취업을 하는데, 물건에는 3가지 색깔의 가격택이 붙어있었는데, 한달 단위로 미리 계획을 세워, 한 달에 3가지 정도의 색깔택을 사용하여 1주일 단위로 더욱 저렴한 특별 가격 이벤트를 하여 물건을 회전시킬뿐 아니라 더 싸게 구입할수 있는 기회제공으로가게를 활성화하고 있었으며, 한 달 단위의 이벤트 행사계획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었다.

(제공되는 기본교육)

가. 읽기/쓰기(Reading,writing)

사무실 지원업무, 현재 업무기술 향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위한 수업. 기본적인 컴퓨터와 워드프로세싱 기술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나. 수학(Math)

수학기술 자신감을 가지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과정임. 암산을 하는 법과 문제를 푸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 방정식을 배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기본적인 수학과 수학을 실제적인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과정임.

다. 컴퓨터(Computer)

컴퓨터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능한 과정임. 기본적인 컴퓨터 켜기, 인터넷 접근법, 이메일 사용법, 파일 생성 및 저장, 워드프로세싱 사용법 등 기본적인 모든 과정을 학습하는 과정임

라. 데이터 입문(data entry)

키보드 기술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학생용 과정으로, 데이터 입력 속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임.

마. 키보딩(key boarding)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한단계씩, 한단계씩 알파벳 익히기, 수자익히기, 기호를 익히고 단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법, 속도를 낼수 있게 하고 연습을 하는 과정임.

바. 캐시어링(cashiering)

기본적인 수학과 카운터 기술, 고객서비스, 현금등록기 사용법 등 캐시어 직업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임.

사) 외국인을 위한 영어(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

*seattle goodwill job training & education: <http://www.seattlegoodwill.org/>

3) Crossroads community center, city of Bellevue: 벨뷰시 커뮤니티센터

도시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지역센터이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이용가능하며, 창구에 5개 국어가 여러 나라 출신의 자원봉사 안내원이 존재하고 있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내 브로슈어가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대강당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무료로 빌려주고 있었으며, 다른 용도로도 빌려주고 있었다. 지역주민이 신청을 하면 소회의실, 중회의실 역시 개방되어 있어서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건물 뒤쪽편으로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으며, 놀이터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 공간을 여유있게 즐길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었다.

4) ACRS: 아시안상담서비스

기관명: ACRS(Asian Counseling and Referrral service)

만난사람: Paul Hong(Korean)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만, 특히 아시아인들을 위한 센터이다. 여기서 아시안들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각종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재정은 기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내 아시아사람들을 위한 지원센터이다. 이주자들이 미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건강문제와 육체적인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을수 있는데, 부적응이나 생활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건강문제를 지원한다. 우선 창구에 직원 혹은 프리랜서 형식의 가능한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 30개 언어제공이 가능하다. 고객의 원하는 언어가 사용가능한 직원이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시켜준다. 전문상담가와 의사들이 연계되어 있어 진단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담 혹은 진료기관으로 연계를 시켜준다. 상담을 하기 위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을 방문했을때도 대기실에 아시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특히 주 서비스는 정신건강서비스(mental health service: 우울증 등 적응문제로 생기는 마음의 치료를 위해 진단후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연결시켜 치료를 받게 도와줌, 비용은 무상으로 가능), 노인건강서비스(노인들의 증세를 진단해주고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과 연계를 시켜주고 비용은 복지카드로 한다.). 주로 한국, 베트남, 중국인들이 많으며,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전국에 1개만 있으며, 아시아 국가수만큼 즉 30개국 언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고객의 국가에 맞는 직원이 서비스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스텝으로는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석사과정을 다니는 폴 홍이라는 직원이 있었고,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었다. 시설은 매우 크고, 진단과 치료를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 지역이 낙후지역이었으나 경전철이 들어오면서 구역정비가 되어 깨끗해 졌으며, 넓은 부지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다.

5) Interpreter: 학교 다문화학생, 다문화가정지원 통역사

만남사람: Youngjae Lee(Lake Washington School District, Bellevue School District)

내용: 미국의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영어권 이외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사가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문제를 상의해야 할 경우, 직접 겨사와 이야기르를 할 것인지, 통역사가 필요한지, 통역사에게 일임하든지 여부를 물어온다. 부모가 해결을 하는 경우는 통역사는 나설필요가 없으나 부모가 통역사를 대동하기를 원하거나 부모대신 통역사에게 부탁하는 경우, 나서게 된다.

이때 교사/학부모/학생/사이에 통역사가 개입하여 양자사이에 통역일을 하며, 그 통역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문화통역을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초등학교에서 미국 학생의 어깨를 한국학생이 반갑다는 의미로 쳤으나, 미국학생이 기분나빠하고 이를 본 교사는 한국학생을 폭력을 행사했다고 부모님에게 학교로 나오라고 연락했다. 학교교사가 부모에게 학교로 나올것을 요구하면서, 한국통역사의 필요성을 물었고, 필요하다고 하여 통역사가 1리에 나갔다. 통역사는 한국문화에 따라 이는 반갑다는 인사를 한 것이며,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고 난후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해 주었다. 다른 사례로는 통역사들의 모임이 있었을 때 학교교사가 한국학생들은 학교공부외에 과외공부를 왜 그렇게 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여 통역사가 한국은 자원이 없고 인구는 많은 국가라 성공을 위해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나라이며, 따라서 이와같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것과 그중에서도 서울대학 등 몇 개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경제력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적자본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준다. 통역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교육문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교사는 이와같은 배경을 아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 이처럼 미국 전역에 특히 초등학교 중심으로 교육청에 여러국적을 가진 통역사들이 등록을 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분처럼 낮2시까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2시이후부터는 통역사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통역사가 급한 다른 용무로 일을 맡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구하여 대처하는 식이다. 이분은 관할 교육청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한국학생문제를 담당한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문화를 알고, 미국문화와 언어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담당한다.

○ 다문화교육은 학교 사회, 지리과목시간에 활용한다. 그날의 주제가 한국이면, 한국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여 부모가 와서 소개할 의향이 있으면, 부모가 학교로 나와서 국가를 소개한다. 한국학부모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복을 입고 한국 국가의 음식을 준비해와서 시식을 하면서, 이와같은 음식을 먹는 시기, 유래 등 질문을 해소하면서 진행되는 국가이야기의 전개이다.

정규과목 내에서 시행함으로써 집중도 높이고 산공부가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가령 입학할 하게 되면 여러국가 언어로 “환영합니다” 는 문구를 만들어 사용하며, 자신의 신발장이나 사물함의 이름도 영어와 자신의 모국어 이름을 같이 사용한는데, 이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이와같은 분위기를 익히게 하는 것이 주용하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를 받아들이는 기본 소양을 어릴적부터 가지게 하는 기반이 된다고 한다. 유치원에서도 동화책의 경우, 그림/ 한글/영어로 된 그림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문화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는 것?자. 교육청에서 이와같은 방향을 계속 요구하고 제시하고 중시함으로써 일선교사들이 이와같은 방침을 따른다는 것이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의 경우, 사회나 지리시간에 주제를 정하여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소규모활동으로 그 국가를 연구해와서 발표를 하게 하는데, 이때 어떤 팀들은 가령 인도이면 인도전통의상을 구해와서 입고 시연하는 등 인터넷자료 검색등 총동원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학생들은 이를 수행하는 계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된다.

통역사들은 교육청에 소속해 있는데, 학군 크기에 따라 총 인원수는 틀리지만 Bellevue 학군 통역관 모임에 갔더니 한국, 일본, 중국(Cantonese & Mandarin), 인도, Ukraine, Russia, Somalia, France, Mexico, Iran, Vietnam, Philippine, Burma, Brazil 등 세계 각국의 많은 통역사들이 모였었다고 한다. 통역사가 담당하는 영역을 보면 가령 제가 만난 이영재 통역사는 두 학군에 이름을 올려두었는데, 두 학군에 속한 어느학교라도 연락이 오면 가서 통역일을 한다고 한다. 이영재 통역사가 이일을 한지는 8년째라고 한다.

6) Korean Women's Association of Washington States : 대한부인회

만남사람: 대한부인회 이사장: SulJa Warnick(Chair, Board of Directors)

장소: 대한부인회(타코마 소재)

○ 대한부인회의 역사설명에서 대한부인회가 미국사회에 크게 알려지고 신용을 얻은 단체로 큰 이유: 미국의 국제결혼이민자가 특히 초기에 미군과 결혼한 한국사람들이 타코마에 많이 정착을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여성들이 가정폭력문제를 호소해 옴에 따라 처음에는 각가 집에 보호해 주었으나, 이들의 건수가 늘자. 주정부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화요원을 1명 받은 것이 사업의 시작이 되었다 한다. 점점 전화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창립멤버 12명의 이사들이 돈을 각출하여 사무실을 임대하고 전화요원을 두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80년대로 오면서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민을 옴에 따라 노인들이 찾아와 급식소에서 주는 음식을 한국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함에 따라 담당자를 만나 부인회에서 이들의 급식문제를 담당하게 했다. 식단을 짜고 한국음식배급을 하자, 이전의 급식소에서는 30여명이 밥을 먹으러 왔으나, 갑자기 130명의 노인이 나타나 급식을 하는 이변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후 사업을 여러 가지로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성공적인 계기는 사무실 마련을 위한 문제 봉착시에 누군가 연방주택공사를 찾아가보기를 권했고, 면담 결과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거의 발길을 돌리는 차에 담당자가 ‘도와주기 힘들나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주택건설비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꼼꼼이 연구해 보고, 이 자금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6개월에 걸친 로비 끝에 연방자금을 땀으나, 이후 지역주민들이 저소득층, 빈곤층노인층 아파트건립이 땅값,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데모가 거세어서 추진이 막혀 있었으나, 대한부인회이사들이 주정부를 찾아가 연방정부에서 확보한 자금을 날릴것인가 아니면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 달라고 하자, 주정부에서 지역주민과 3번의 공청회 결과, 이지역의 숙원사업인 물난리를 막아주는 하수도공사에 대한부인회가 50%. 시에서 50%의 재정을 내어 설치하기로 하여 저소득층노인주택건설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또 3층 건물은 2층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노인아파트를 건설했다. 총25동에서 20동은 한국인, 5동은 외국계로 분양했는데, 별때같이 분양인파가 몰려들어 매우 성공적인 분양을 했으며, 이를 계기로 노인주택펀드를 파서 주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부인회가 투명하게 사업을 잘 해 내자, 주정부에서 쓰레기장을 매립하여 집4동이 딸린 땅10에이커를 주면서 과수원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음에 따라 과수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4개동은 과수원에서 나오는 과실을 먹을 수 있으나, 과수원에서 나온 전체 물량은 푸드뱅크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대한부인회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글이 제2외국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여 역시 도입에 성공시켰다. 실제로 도입될때 대한부인회에서 학습을 맡아달라고 하여 학교현장에서 한국어를 3년간 가르쳤다. 제2외국어가 제2외국어로 살아 남으려면 한해 800명 이상이 시험을 봐야 하므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이 되어야 함을 지적했으며,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다시 공사중인 아파트가 오픈하게 되며, 여성을 위한 쉼터도 16동을 지어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 주사업: 노인돌봄조사원 사업이다. 주정부에서 노인들에게 가는 돈을 받아서, 여기서 직원을 채용하여 노인 가가호호에 보내는 서비스를 수행한다. 정부에서 6불을 받아서 4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 재정상황: 현재 200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1,100명의 유급직원이 활동 중이라 한다. 직원수가 많은 이유는 노인돌봄조사원 때문이며, 이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인이 방문한 워싱턴 지사에는 30명의 스텝이 근무하고 있었다.

○ 향후 사업: 문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zen 센터 등 문화를 파급하는 쪽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한국인이 많지만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LA, 뉴욕에 현재 하는 방식을 전수시켜서 거기서도 사업을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30개국가의 나라사람들이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스텝도 있음. 모든 프로그램은 한국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음. 보다 주

류사회를 염두에 둔 사업과 펀드를 확보하는 쪽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마인드 자체를 다르게 하기 위해 한국인중심의 이사회 인사구성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미국사람들을 영입할 계획이며 곧 새로운 이사진, 스텝들로 발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사업을 이제는 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류사회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하며 인적구성도 이를 염두에 두고 바꾸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대한부인회가 가장 성공적인 확장을 하게 된 이유:

- 미군과결혼한 여성들이 타코마지역에 많이 이주
- 그들의 필요에 따라 비영리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 미친 비전을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될 때까지 마음로비(heart lobby)시행 결과

7. 평가 및 제언

미국은 우리와는 달리 태생적으로 다문화사회여서 체계적으로 더불어 사는 문화를 위한 장치와 생활습성이 틀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가령 유치원에 입학하면 아이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무관하게 교사는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여러나라 말로 적어서 매달아놓고 교사도 인사를 여러 국가 언어로 한다고 한다. 또 사물함 등 리름을 다는 곳에는 학생의 모국어로 된 이름과 영어이름을 같이 적는다는 데서 생활속에 다문화 관행이 수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들간에 문제가 생겨 학부모를 부를 경우, 반드시 통역사 필요여부를 물어보게 되어 있으며, 통역사가 대동하면 학생의 행동에 대한 문화통역을 해줌으로써 문제해결방안을 찾아 나간다는 점에서, 사람을 향한 합리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실용적인 관점과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도 향후 다문화에서 발생가능한 문화적해석이나 오해문제에 대해 문화통역을 수반하는 접근방식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드넓은 대자연의 축복, 미국사람들의 공간 개념을 보고 우리와는 다른 속도, 공간, 시간개념을 보았으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미국은 참으로 축복받은 국가, 축복받은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므로 쉽지 않겠지만, 좁은 데 살고 있어도 생각과 마음 평수의 크기는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수를 마쳤다.

9. 수집한 자료

워싱턴 대학교 다문화 교육센터 자료

10. 방문기관 및 인사

방문기관: 워싱턴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The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이민자 취업교육·훈련기관 굿윌(Good Will)

커뮤니티센터(Crossroads community center, city of Bellevue)

아시안상담서비스(ACRS)

학교 다문화학생, 다문화가정지원 통역요원(Interpreter)

대한부인회(Korean Women's Association of Washington States)

방문인사: 1) Manka M.Varghese(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education, area of curriculum & Instruc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2) Paul Hong

Asian Counseling and Referral service

Seattle WA 98144

paulh@acrs.org, www.acrs.org

3) Vicki Drake(community service supervisor)

Crossroads community center

Parks & community service department

vdake@bellevuewa.gov

4) Sulja Warnick(Chair. Board of Direction)

Korean Women's Association of Washington State

fswarnick@earthtink.net, www.kwaoutreach.org

5) Yuongjae Lee(Interpreter)

Lake Washington School District, Bellevue School District